

지상진료실

턱교정수술 (XIV)
-구순열/구개파열 (3)-

서울중앙병원치과
김재승

구순열과 구개파열은 얼굴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기형이다. 치료의 목적은 1) 심미적 개선 2) 기능적 악골형태 3) 발성과 발음 4) 치아와 청각의 유지등이다. 그러나 이상의 치료 목적은 수술의 시기와 방법에 의하여 서로 상충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즉 발음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조기치료와 수술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얼굴모양의 개선을 위해서는 윗턱의 성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경구개부를 수술하는 것이 좋다. 다행히 소아치과학과 교정학의 발전으로 치아와 턱에 Orthodontic 과 orthopedic treatment를 함으로써 예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구강외과의 발전으로 파열된 치조골의 골이식과 턱교정수술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신생아부터 성장이 끝날 때까지의 구순열/구개파열의 치료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case의 그림 1은 편측구순열과 구개파열이 있었으나 구순열 수술만 하고 구개열(경구개, 연구개)은 obturator만 장착한 경우로 상악골의 성장이 거의 정상이어서 상악의치로 class I 상태를 이룰 수 있었고, 그림 2는 편측구순열/구개파열로 수술받고 상악의 성장이 부족하여 얼굴중간이 들어가고 전치부의 반대교합이 있다. 그림 3은 양측성구순열/구개파열로 수술받고 상악골성장이 저해받아 심한 얼굴의 변형이 초래된 경우이다.

구개파열의 수술은 필연적으로 상악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러나 수술기법의 발전, 특히 치조골이식과 턱교정수술 그리고 교정을 이용하여 상악골을 전방이동시키고 치궁을 확장함으로써 과거보다 좋은 치료결과를 얻게 되었다.

표 1. 구순열/구개파열의 치료

나이	치 료
1-4주	술전구개정형: 구개의 모양을 obturator 등의 장치로 바로 잡아준다.
8-12주	구순열수술: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치아가 있다.
18-24개월	구개파열수술: 연구개를 먼저 시행할 수 있다.
6-11세	언어, 발음치료: 왜곡된 발음을 훈련을 통하여 교정한다.
7-8세	조기교정치료: 전치의 배열과 상악치궁의 좌우확장
6-10세	치조골골이식: 치아의 발육에 따르지만 보통 전치의 봉출전에 시행하고 교정치료 고 교정으로 치궁을 확장시킨다.
9-19세	인두피판수술: 비인두 폐쇄를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비인두의 임파조직의 퇴축이나 상악 턱교정수술후에 할 수 있다.
17-19세	턱교정수술과: 상악골 전방이동 하악후방이동의 수술과 수술전후 교정치료를 한다.
17-19세	보철치료: 결손치아를 보철로써 회복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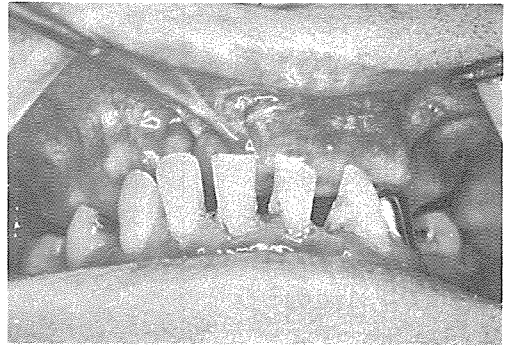


그림 1. 좌측구순열/구개파열로 구개파열은 obturator만을 장착한 경우로 상악성장 부전이 적어 정상적인 안모를 나타내고 상악의치의 장착으로 class I의 정상교합을 갖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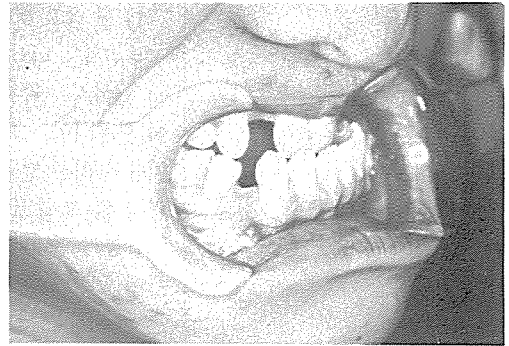


그림 2. 좌측구순열/구개파열로 수술받은 경우로 상악의 성장·발육 부전으로 얼굴중간이 들어가고 class III의 부정교합과 반대교합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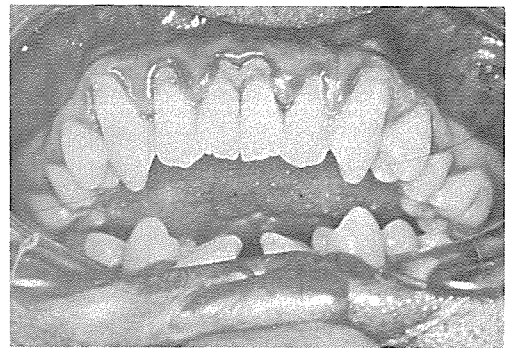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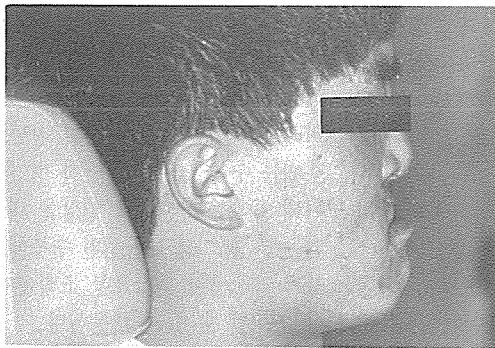


그림 3. 양측구순열/구개파열로 수술받은 경우로 상악의 성장발육부전이 심하여 턱안면의 변형이 심하고 치어는 심한 class III의 부정교합과 반대교합/개교합을 나타냈다.